

중국에서 부는 한류상품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상품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우리 민족의 심성과 가치관 그리고 문화를 이끌어내는 정책까지도 포함된 사회의 성숙함도 함께 평가되기 때문이다.

오랜 전통의 유교적 예의를 갖춘 국가에서 세계경제대국의 반열에 있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넘어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잠재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국가의 문화는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텔레비전 드라마로 인한 일시적인 반향을 그저 요란스럽게 포장을 하고 있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화로 이끌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외 유명기업에서도 소프트산업 내지 전통산업의 소프트화에 주목하는 이유를 알아야한다. 감성과 창조 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소프트만이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을 기회로 중국문화산업을 세계로 전파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제조업 일변도의 산업에서 점차 영상과 공연예술 등 다양한 문화 분야를 전연으로 내세우면서 문화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올림픽은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문화의 측면에서 그렇다. 세계는 이미 자국의 문화를 산업의 키워드로 삼고 있다. 그 위용의 하나가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베이징 올림픽과 문화 경쟁력

주경기장인 국가체육장, 즉 세의 동지를 연상하는 나오차오 그리고 텐안먼(天安門)광장의 서쪽, 인민대회당 북쪽 옆에 우뚝 선 마치 거대한 우주선이 내려앉은 모습의 국립극장 성역인 '국가대극원(國家大劇院)'이다.

이 극장은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대국에서 문화대국으로 우뚝 서려는 중국이 세계에 자랑하려고 내놓은 건축물이다. 유리와 티타늄으로 장식된 외관은 6250가지 서로 다른 2만2000장의

패널로 일일이 손으로 붙여졌다고 한다. 주설계자는 파리 드골공항과 상하이 푸둥(浦東)공항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프랑수아 풀 앙드레이다.

또한 중국판 '피사의 사탑'으로 불리는 중국 국영방송(CC-TV)의 신축건물은 네덜란드 출신의 건축가 뎀 클라스의 작품으로 영국의 '더 타임스'가 뽑은 세계10대 건축물적으로 뽑힐 정도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뿐만 아니다. 중국의 전통을 재건하려는 노력 또한 눈길을 끈다. 570년의 역사를 지닌 '첸먼다제(前門大街)'는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복원한 명나라 때부터 유명한 상업거리이다. 베이징의 유명한 오리구이집 '취안슈더(全聚德)' 등 100년이 넘는 유명상점의 라오쯔하오(老字號)들이 옛 모습 그대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도시설계사인 루이스 멀프르는 '도시는 문화의 그릇'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문화기호는 이처럼 무서운 정도로 세계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대극원은 분명 오늘날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문화와 경제력을 갖춘 중비의 상징으로 섰다.

이들의 놀라운 발상과 현실에서의 도전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탁월한 상상력과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의 결과물이다.

상상력은 한마디로 말해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능력이다. 상상력이 빈곤한 사람에게서는 세계를 재구성할 수 없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예술, 즉 공연예술과 사람을 느낄 수 있는 정치 그리고 경제가 상상력과 맞닿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상상력이 없으면 모든 게 피폐해진다.

우리가 막 오른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동적으로 몇몇 공연예술단체가 참여하여 공연한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들이 시방 우주법계에 울려 퍼져 되돌려지니 이것을 두고 상구부리 하화중생이요 나와 남이 모두 하나 되어 부처를 이룬다는 자타일시성불도가 되겠지요.

살아있는 선

오늘 법회에서 법사님께서 '선(禪)'의 즐거움을 일깨워주시고 그것을 계속 실천해 나가라고 당부한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선의 기쁨과 환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되길 진심으로 발원하여 봅니다.

저도 불교공부하며 그동안 목조선, 간화선 수많은 선의 형태를 행해보았어요. 그러나 이제야 이 모든 게 율바른 선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앉아서만 하는 선은 활구가 아닌 사유했기 때문입니다. 법사님과 같이 행으로 실천으로 옮겨질 때야말로 참된 선이 되고 살아있는 선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소견 공부 힘써 더하여 생각 없이 생각하고 행함이 없이 행하며 말함이 없이 말하고 뒤음이 없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옵소서!
참회 불자 00- 두손 모읍니다.

내년의 부처님 마음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행하고자 발심한 법우님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아시는지요. 정진하여 꼭 서원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남북불교가 손잡은 이유

남과 북의 불심이 '해의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와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 규탄'에 손을 잡았다. 갈수록 경색일로를 달리고 있는 남북관계와 대조적이다. 특히 남과 북의 불교 대표가 이 두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한 날이 북경올림픽이 열리는 8월 8일이었던 것도 흥미롭다. 그날 올림픽 개최식에 남과 북은 공동입장을 하지 못한 채 따로 입장했다. 종교적 입장에서의 대화와 합의는 정치 안보적 입장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남과 북의 불교대표들은 해외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 가운데 일본의 조선의제와 미국의 '라마탑행사리구' 환수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한다. 또 독도문제와 관련된 강도 높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최근 남과 북의 불교교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겼다. 지금도 인도적 지원의 차원에서 다양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과 금강산관광 사업 전개,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복원과 문화교류 등은 남과 북이 불심을 뿌리로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불교계의 인도적 문화교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한 하늘 아래 사는 한 깃줄임을 부정하지 않는 한 양쪽 모두에 뿌리 깊게 전해 온 불교의 문화와 정신도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계는 대북교류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적인 활동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자들 시청 앞에 모이는 까닭은?

8월 27일 현 정부 들어 그침이 없는 종교편향 사례에 분노한 불자들이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모인다. 시청 앞 광장,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이 한민족의 지력을 과시했던 곳이고 올해 들어서는 정부의 대책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성난 민심이 솟발을 뿜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서울 시청 앞 광장은 우리시대의 '뜻'이 모아지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곳이다.

그런 곳에 불자들이 모여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교계 안에서 풀어야 하고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아고라'로 스님과 재가자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불교도대회'의 규모와 의미를 생각할 때 마지막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카드의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현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특정종교가 공직 등의 권력을 앞세워 편향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심대한 위헌행위다. 그런데 지금은 특정종교에서 그런 위헌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물론 그 행위로 인해 불교계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27일 불자들은 이 땅에 종교의 가치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종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서울 시청 앞에서 풀어야 할 불교인들의 화두다.

행복은 바로 내 안에

법사님, 사람들은 흔히 화가 바뀌어 복이 되었다는 '전화위복'의 고사를 자주들 인용합니다만 저만큼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는지요. 저는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제 안의 저를 볼 수 있음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 안에 행복이 넘쳐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의 구름에 가려 그 행복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사님, 약속드릴게요. 이 못나고 부족한 수인의 이 마음 다 바쳐 맹세할게요. 실수는 단 한번으로 족하리라고, 사회에 복귀하여서도 건전한 직장에서 자리 잡아 안정된 모습으로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바뀌면 주변이 바뀌음을 압니다. 제가 밝아지면 주변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짐을 압니다.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고 마음을 낮추어 진정으로 낮은 곳으로 임한다면 그것이 바로 밝음일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그 곳에서 행복의 씨앗이 자라남을 믿습니다. 지혜의 마음이 자라남을 믿습니다. 무엇이 밝음이고 무엇이 어두움임을 알기에 저의 앞길엔 어떤 두 번 다시 어두움은 없을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밝음을 좇아 행하는 저의 마음이 본래 자리요 주인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부터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77 세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희망이 되고 싶어요

법사님, 저는 제 나름대로 이곳에서 앞으로 제가 가야할 길을 조금씩 정립해 나가고 있는데 저의 자그마한 소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검정고시 대입자격에 합격하여 못다 이룬 학업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법사님, 저도 출소 후엔 아내와 함께 세상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가장 간절한 소망과 뜻은 이곳에서 이발사,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여 출소 후에 양로원이나 보육원 등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비록 물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그 분들의 머리를 잘라주면서 그 다듬고 자르는 시간 동안 부처님의 소중하신 가르침을 아름답고 재미있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몇 번은 시간 내어

버리고 소외되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분들께 저도 법사님처럼 그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의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서원을 세워 발원을 하면서 언젠가 모두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밝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지혜의 마음을 밝히고자 하는 이 마음에 퇴굴심만 일지 않고 용맹 정진해 나간다면 기어이 소망은 현실이 될 수 있겠지요.

법사님께서는 이 세사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 맞으시죠? 예? 맞다구요? 그래요. 법사님께서는 항상 우리 같은 이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시고 축원해 주시니까 얼굴 가득 행복이 충만한 기운이 넘쳐 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인가 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또다시 감사해하고 기뻐한 그 마음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해전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 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전법사

-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지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학인모집
영남 법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법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7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안 내
◆입교일시 : 2008년 8월 28일(목요일) 오후 3시
◆교육기관 : 6개월 과정
◆교육내용 : 일반불공의식 및 재의식
1.각종 불공 및 재의식 2.사물 다루는 법 3.바라 및 승무작법
◆수강자격 : 삭발염의 한 출가 승려에 한 함
◆수 강 료 : 월 10만원(교재비 별도)
◆수 강 일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사가 406호 (서진주 I.C에서 5분거리)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법패불음원을 쳐보세요.
◆문의전화 : 055)747-8419 / 011-867-8419(원장 원명스님)